

# FTA시대 글로벌 스탠더드 정책방향



최형기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표준기술지원부장

'06년에 우리나라는 3,255억 달러 수출로써 161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는 금자탑을 이루었다. 이러한, 큰 성과 뒤에 극복하여야 할 과제가 있다. '05년 통계에 따르면 기술 무역 부문에서 수입 45억 달러, 수출 16억 달러로써 29억 달러 적자이고, 최근 수년간 적자폭이 증가하고 있는 큰 문제를 갖고 있다. 이러한 기술무역의 험난한 파고를 넘을 비책은 없는가? 연구개발, 특허와 표준을 연계하는 글로벌 스탠더드 산업정책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연구개발·특허·표준 연계는 글로벌 스탠더드 산업정책이 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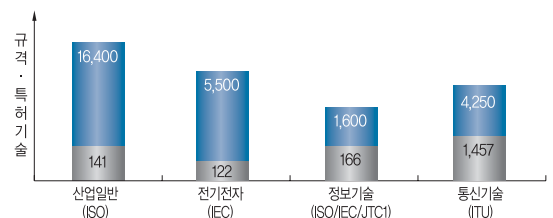
미국의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 IBM은 '06년에 연구개발 결과에 대하여 3,600여건의 특허를 출원 등록하였고, 로열티 수입만 10억 달러이다. 또한, 특허를 표준으로 사용에 있어 공평하고 비차별적인 조건(RAND)으로 일정 금액만 받는 특허·표준 정책을 추진하여 표준화를 통한 지속적인 기술료 수입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한편, 유럽은 '90년대에 국가차원에서 서로 연합하는 STAR(Standardization And Research) 회원 제도를 운영하여 연구개발 단계에서 특허와 표준을 연계하여 GSM 방식 휴대폰 표준을 만들어 기술에서 우수한 일본의 PDC와 미국의 CDMA를 제치고 세계시장의 80%를 점유하여 많은 기술료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간에 일부 정보기술의 연구개발, 특허와 표준을 연계하여 동영상(MPEG) 특허·표준으로 수천만 달러 기술료 수입을 받고 있는 성공 사례가 있지만, 그간에 연구개발·특허·표준화를 연계하는 체계적인 글로벌 스탠더드 정책으로 제도화 추진에서는 미흡하였다.

## 기존의 특허기술을 국제표준과 연계해야

최근 수년간 3대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ITU)에서 미국, 일본, 유럽 국가는 RAND 조건(그림 1)으로 멀티미디어, 산업자동화, 전기전자, 동영상,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27,750여 규격 중에서 총 1,880여건에 대하여 특허를 국제표준화 하였으나(그림 2), 우리나라는 동영상, 통신에서 30여 종에 불과하다. 특히, '06년에 산업재산권에서 36만 8천여건, 국제특허 출원 5,935건으로 세계 4위로 도약하여 특허 출원 강국으로서 우리의 특허기술을 국제 표준으로 연계할 수 있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산업자원부가 선정한 600여 세계 일류화 품목과 800

	ISO/IEC	KS	ITU-T
특허권 항목 표준화	가능	가능	가능
특허분쟁 발생시 책임	없음	없음	없음
특허권 상태 조건	공평하고 비차별적인 상태 (RAND only)	공평하고 비차별적인 상태 (RAND only)	3가지 옵션 제공 (Free, RAND & No)
특허권 신고 양식	있음	없음	있음
표준내 특허 DB 제공 여부	웹상에서 제공(미흡)	없음	웹상에서 제공(중간)
특허권 정보수집 및 행사여부 조정	규격 제인자	규격 제인자	사무국
특허권 세부 절차 가이드라인	있음	있음	있음
표준내 특허권 관련 정보 표기	있음	있음	있음

〈그림 1〉 국제표준(ISO/IEC, ITU)과 국가표준(KS)의 특허표준정책



〈그림 2〉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ITU)의 특허 반영 국제표준

여 신기술 인증제품(NEP) 중에서 특허기술을 RAND조건으로 국제표준화에 있어 글로벌 시장의 확대가 가능한 제품을 위주로 중점 발굴하여 추진하면 특허·표준을 통하여 일부 전기전자, 정보 분야에서 기술료 수입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조사·분석 및 절차 등에 대한 최고의 관행(Best Practices)을 만들어 기술제품별 또는 업종별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지침서로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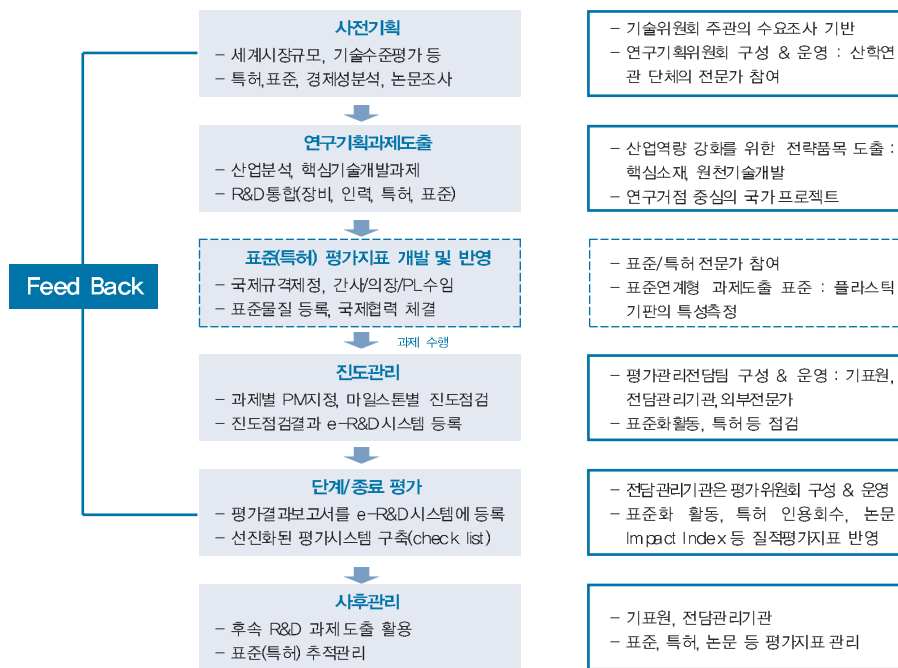
### 연구개발 초기부터 특허와 국제표준화를 고려하여 추진해야

'06년에는 글로벌기업, 정부 부처가 여러 전략을 발표하였다. 독일의 글로벌 기업인 지멘스는 비즈니스 전략을 R&D 프로세스, 제품 브랜드, 지적재산권, 표준과 기술기준 및 환경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글로벌 전략적 표준화 경영(Global Strategic Standardization Management: GSSM)을 발표하였고, 우리나라의 삼성, 엘지 등 글로벌 기업에서도 특허와 표준 전문 인력 증원과 연구개발의 효율성 제고 전략을 제시하였다.

산업자원부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을 반도체, 디스플레이,

차세대의료기기, 융합기술 등 미래기술의 선점과 확산과 함께 인력양성, 특허·표준, 마케팅 대응까지 패키지 형태로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금년부터 기술표준원은 전략기술개발과제 시범사업에서 기획에서부터 특허와 표준 전문가가 참여하여, 동향 조사·분석, 과제도출, 특허·표준 지표 개발, 진도관리·평가, 후속 과제 도출의 피드백 등 연구·표준개발·특허 (Research & Standards Development : R&SD-Patent)체계의 제도화를 추진 할 계획이다(그림 3). 디스플레이 등 시범과제를 중심으로 R&SD-Patent 협력모델을 개발하여 여타 산업분야에 확산하여 국가의 소프트 인프라를 구축하여 나아갈 것이다.

이러한 국가의 소프트 인프라와 기업의 특허·표준 경영 전략을 융합하는 새로운 글로벌 표준화 전략을 통하여 우리 기업은 원천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단독으로, 또는 특허풀 내에서 여러 기업과 함께 특허권을 공동 행사함으로써 기술료 수입을 극대화 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국제표준화를 통한 제품의 호환성 증대 등으로 소비자에게 브랜드화는 수출 시장의 확대와 RAND 조건의 기술료 수입에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것이다. 정부와 기업 함께 연구개발·특허·표준 연계 3박자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 할 때에 FTA시대에 기술수출 흑자로 전환함으로써 수출 5천억 달러,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의 초석이 될 것이다.㉠



〈그림 3〉 전략기술 디스플레이의 R&SD-Patent 추진계획